

2020 광주비엔날레 주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삶과 지성’ 실천과정 탐구
‘GB토크’ 서울 행사 마무리
참여작가들 12일까지 리서치
11일 광주서 초등생과 워크숍



2020 광주비엔날레 ‘GB토크: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파트 2가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미술관에서 열렸다.

올 9월 개막하는 2020 광주비엔날레(9월 4일~11월 29일) 주제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으로 확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은 비서구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생활 체계와 공동의 생존을 위한 예술적 실천에 방향성을 둔 주제라고 설명하며 수많은 ‘삶과 지성’의 다양한 실천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40주년을 맞는 광주민중항쟁을 새롭게 해석하고 여타 저항운동들과의 연결점을 포착한 작품들도 소개된다.

인간 지성의 전 영역을 살피는 예술적 접근법과 과학적 방법론을 탐구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전시, 퍼포먼스, 온라인 출판 플랫폼 등 공공 포럼을 포함한 역동적인 행사로 구성된다.

‘떠오르는 마음’은 공동체 정신으로서 지성의 확장과 정치적 공동체를 탐구한다. 토착 생활 문화와 애니미즘, 모계적 체계, 제도도 규정할 수 없는 연대의식 등을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현상들을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맞이하는 영혼’은 지식의 대안적 형태, 치유 행위, 샤머니즘적 유산, 그리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역사에 대한 인식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말한다. 특히 5·18 40

주년에 맞춰 오늘날 저항운동 문화와 민주화 운동 사이의 연결점을 생생히 포착할 예정이다. 무력행사와 검열, 식민화, 우익세력 등에 맞선 역사적이고 동시대적 언어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전략에 대해 고찰하는 기획이다.

테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공동 예술 감독은 “이번 주제는 수많은 삶과 지성의 다양한 실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은 반대로 영혼이 떠오르고(spirits rise), 마음을 맞이하는 것(minds attune)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 준비과정을 공개하는 ‘GB토

크’ 서울 프로그램도 최근 마무리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주최로 지난 7일 현대미술관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GB토크: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파트 2에는 예술감독, 참여작가, 국내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지난 10월 광주 행사에 이어 열린 이번 기획에서는 광주5·18민주운동기록관, 광주극장, 백양사, 서울 샤머니즘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이루어진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총 7개 세션의 그룹 토크와 아티스트 토크가 이어졌다. 참여작가 아나 마리아 밀란, 펠레 헤레이라벤, 애드 밀놀리티, 코라크릿 아룬나차이, 문경원 등은 ▲디지털 문화와 페미니즘 및 공연성의

관계 ▲공상과학을 통해 가상세계를 건설하는 방법 탐구 ▲집단 지성의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역사를 정서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GB토크는 참여작가들의 국내 리서치 일정과 예술감독의 작가 연구를 위한 방향 기간에 맞춰 추진됐다. 이들은 12일까지 가회민화박물관, 광주트라우마센터 등 국내 주요 시각예술 문화기관 및 협력기관을 방문, 리서치를 추진한 후 13일 출국한다. ‘남새’와 ‘후각’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이자 이론가인 시셀 톨라스는 11일 광주에서 초등학생과 함께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구례 화엄사에서 만나는 인연 ‘사모곡-연(緣)’

2월2일까지 류현자 초대전



‘님의 자리’

늘 희생하며 가족을 생각했던 어머니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버선’을 소재로 작업해온 한국화가 류현자 작가가 ‘사경(寫經)’을 하기 시작한 것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다. 어느날 밤, 팔순의 어머니가 연필에 침 묻혀가며 불교 경전 ‘금강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본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자 사경을 시작했다.

이후 다채로운 색감의 버선과 연꽃, 사경이 어우러진 그림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녀가 이번에는 그림과 딱 맞는 장소인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초대전(2월2일까지)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 주제 ‘사모곡-연(緣)’은 작가가 생각하는 세가지 ‘인연’을 담고 있다. 늦은 나이에 붓을 잡은 인연에 대한 감사함, 사모곡 속에 엄마를 담은 인연에 대한 애잔함, 사경을 통한 부처님과 인연에 대한 낙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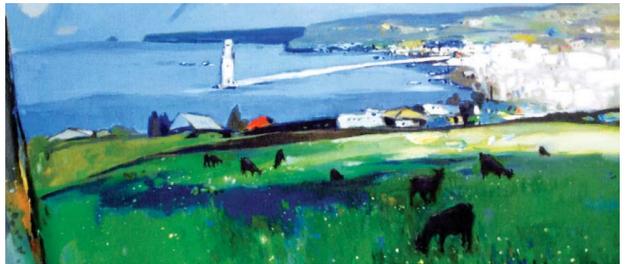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병품 작품 2점과 평면 작품 18점을 선보이고 있다. 불

교경전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새겨넣은 작품들이다. 붉은 바탕의 한지에 연꽃과 ‘금강경’ 5849자를 촘촘히 새겨넣은 ‘님의 자리’는 작가의 공력과 지난한 노동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얼핏 글씨가 ‘인쇄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될 정도다. 작가는 경전을 한글자 한글자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바워지며 또 다른 성취감을 얻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밖에 반야심경 270자와 다양한 색감의 연꽃과 버선 그림이 어우러진 부채 작품도 여러 점 선보이고 있다.

한편 류작가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 아산병원갤러리에서도 초대전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곳곳 아름다운 산하

이진표 초대전, 15일까지 LH휴양갤러리



‘등대’

서양화가 이진표 작가 초대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양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름다운 산하의 모습을 담은 풍경 작품을 선보인다. 계절마다 화구를 메고 전국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작가는 현장에서 감흥받은 다양한 풍경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평화로운 항구 풍경을 그린 ‘등대’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푸른빛의 바다와 초록 풀밭이 어우러져 편안한 감성

을 전하며 다양한 색감의 붓질로 통해 생동하는 계절의 기운을 전하는 ‘여름’도 눈에 띈다.

그밖에 가을이 찾아오기 시작한 강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은 ‘섬진강’, 겨우내 갈취두었던 싹을 띄우며 봄을 알리는 나무를 그린 ‘산동의 봄’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서울 백송화랑 등에서 10여 차례 개인초대전을 가졌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황토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베토벤 탄생 250년... 광주시향, 교향곡으로 신년음악회

16일 문예회관... 임현정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교향곡을 선보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제 350회 정기연주회 ‘2020 신년음악회’가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객원지휘자 권민석이 지휘봉을 잡고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한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도 환희와 활기찬 분위기가 가장 충만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권 씨는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고음악과 지휘를 전공했다. 리코더 연주자와 지휘자로 이미 광주시립교향악단

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이다.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임 씨는 2009년 유튜브에 올린 립스기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연주 동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그는 3세 때 음악을 시작해 12세 때 프랑스 컴피엔느음악원에 입학해 다섯 달 만에 1등으로 졸업했다.

이후 15세 나이에 들어간 파리 루앙 국립음악원에서 최연소로 조기 졸업했고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 앙리 바르다를 사사하며 최고 점수로 석사에 해당하는

고등교육학위를 받았다.

2010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8일 연속으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 이후 EMI를 레식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앨범을 발매했다. 이 음반은 빌보드,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음악과 영성에 관한 에세이 ‘침묵의 소리’(Le Son du Silence)를 출간했으며 프랑스, 스위스



지휘자 권민석



피아니스트 임현정

방송 ‘라디오 프랑스’, ‘프랑스 뮤직’ 등에 출연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학생 50% 할인)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